

상호 협조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김 임 현
(주) SKC 마아케팅 과장



〈김임현 과장 프로필〉
 생년월일 : '60. 2. 15
 출 생 지 : 제주도 제주시
 현 주 소 : 성동구 사근동
 키·몸무게 : 173cm, 60kg
 별 명 : 쌍칼
 취 미 : 낚시
 가족사항 : 4 남 1 녀 중 막내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 : ?
 하루중 가장 힘든 시간은 :
 과음 후
 하루 용돈 : 10,000
 주 량 : 소주 1병
 어릴때의 꿈 : 문화가
 결혼의 정의 :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것
 가장 외롭다고 느껴질때는 :
 혼자 집에 들어갈때
 요즘의 최대 고민은 : 결혼
 올해의 목표 : 프랑스 유학

오디오의 혁명!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완벽한 첨단기술로 작동되는 Compact Disk,

本誌는 완벽한 음(音)의 세계를 수출무대로 끌어들이 하루를 25시간으로 살아가는 SKC의 김임현과장을 찾아보았다.

“저희 Compact Disk는 레이저 광선으로 소리를 읽는 비접촉 픽업방식이므로 기록면이 마모되지 않으며 접촉에 의해 생기는 잡음도 철저히 배제되어 피아니시모(PP)로부터 포르티시모(FF)에 이르기까지 소리의 생생한 현장감과 가청범위의 한계음까지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다”며 Compact Disk의 완벽성을 자랑한다.

김과장은 '85년도에 Project 팀에 입사, SKC맨이 되어 최근까지 CD수출과에서 무역업무를 담당,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여 '90년도 무역의 날에는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그후 마케팅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노력과 결실, 그리고 행운이 함께한 「電子25時」의 표본으로 보였다. 김과장은 “바이어들과의 접촉을 통해 Order에 의한 생산현황, 생산관리 등을 체크하고 대양주나 홍콩지역을 주무대로 세계를 누비는 것이 저에게는 보람있는 일”이라며 SKC맨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보람된 나날이라고 말한다.

근년에는 Business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프랑스에 유학을 준비중이라고 다소 흥분한 모습.

평소 업무에 대한 신조를 “도전없는 삶은 가치있는 것을 창조해 내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퇴보하고 허물어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땅에 우리 젊은 사람들—내일의 주역이 될 엘리트라면 마땅히 모험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 자체가 해외시장에 나아가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근성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하여 승부를 걸어야 하는 데는 이러한 근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출과 직원들과는 “현사회가 개인주의 경향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회사, 우리부서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상호협조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지요, 정말 메사가 의욕적이고 자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인데 그때는 퇴근후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날그날을 차근히 풀어나간다고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시간은 새벽에 일어나서 30分정도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아침을 설계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지요”라며 자신을 설계하는 시간이 남들이 자고있는 새벽에 시작된다고 한다.

자기관리에는 늘 계획과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어 꼼꼼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쉬는 날은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SKC 낚시회 회원들과 자주 기회를 갖는다며 낚아 채 올리는 그 멋도 멋이지만 싱싱한 횡감을 고추장에 척발라 먹는 그 멋도 정말 말로는 설명을 못한다며 낚시에서 오는 즐거움을 되새겨 보기도 했다. 금년에는 꼭 해야되는 일에 대해서는 김과장은 조금은 머뭇거리다가 “올해는 저에게 중요한 한해를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여자」를 만나 꼭 결혼을 하고 싶다”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지난 해에는 일에 미련없이, 올해에는 나머지 반쪽을 채울 천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김과장을 보면서 우리 전자산업의 역군을 보는것 같아 마음 한곳이 흐뭇했다.

아무튼 올해 프랑스 유학과 함께 김과장에게는 결혼도 시급한 숙제일거라고 생각되어진다. SKC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의 말과 같이 신념에 찬 전자공업인들의 한해가 되길 비는 마음을 가져본다.